

01 교회소식

성령의 대폭발로 역사하신 하나님

2014 만민 하계수련회 첫째 날, 기쁨을 해갈하는 축복의 단비가 내렸던 '2002 인도 연합대성회'의 감동이 재현됐다.

02 생명의 말씀

때가 이르러니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한 믿음과 사명에 대한 소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03 특집 1

우리는 하나

만민 하계수련회 둘째 날, 시원한 바람과 맑은 날씨 속에 대대교구별 체육대회가 열려 국내외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됐다.

04 특집 2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만민 하계수련회 셋째 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마음과 찬양의 향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인 캠프파이어.

# 만민뉴스

제647호 2014년 8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잊지 못할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며 행복했던 '2014 만민 하계수련회'



만민 하계수련회는 매년 놀라운 기사와 표적, 살아 계신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 올해에도 전국 및 해외 25개국에서 참석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몽골어, 베트남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총 9개 언어로 동시통역 됐으며,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생중계 됐다. 국내외 성도들이 함께한 '2014 만민 하계수련회'의 특별했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사진: 하계수련회 첫째 날 은사집회 때 간증하기 위해 단에 오른 성도들이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 첫째 날 '온 영 2' 교육과 성령의 대폭발로 역사된 '은사집회'

8월 4일부터 7일까지 '2014 만민 하계수련회'가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진행됐다. 첫째 날 '온 영 2(히 10:22) 교육 때에는 시종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성도들은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강사 이재록 목사를 신뢰하기에 자리를 뜨거나 불평하는 이가 없이 행복하게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행함과 하나 된 모습을 기뻐하시고 강사 이재록 목사의 교육 후 이어진 은사집회를 통해 성령의 대폭발로 확증해 주셨다. 강사 이재록 목사의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은 수많은 성도가 단에 올라와 온갖 질병

과 연약함을 치료받아 간증했고, 특별히 시력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많았다. 질병 치료는 물론, 각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수련회 후에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

한편, 올해에도 수많은 잠자리 때가 출현해 해충을 박멸해 주었고 질서정연하게 편대로 이동하는 신기한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잠자리는 낮에 활동하며 날개가 습기에 약해 비가 계속 내릴 때에는 나뭇잎 같은 곳에 피해 있는데, 첫째 날 수련회장은 비가 오는 밤인데도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며 성도들에게 앉아 기이한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2003년 러시아 연합대성회 때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러시아어 ‘만민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해 들으며 관심을 갖고 있었지요. 만민의 사역을 체험하고 싶어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모든 일정에 만족합니다.

특히 첫날 우중에도 교육받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셔서 비가 멈췄다면 ‘뜬대로 기적 중 하나를 체험했구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중에도 끝까지 설교하시는 당회장님과 요동 없는 성도들의 하나 된 모습 자체가 기적이었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 하나님을 믿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이런 믿음이 나오구나’ 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 러시아 올렉 베체린 목사



“저는 태어날 때 오른쪽 눈물샘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눈물샘을 뚫다가 근육을 건드리는 바람에 저는 왼쪽 눈으로만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었지요. 그 러다보니 점차 좌우 시력에 차이가 생기고 오른쪽 눈이 사시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시야가 다른 사람의 삼분의 이 정도로 좁고, 같은 주황색도 밝기가 다르게 보였지요. 오른쪽 눈으로 보려고 애쓰면 두통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뒤 시야가 정상적으로 됐고 색상의 밝기도 같아졌으며, 오른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두통 없이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청년선교회 허남영 자매

(3면으로 이어짐)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 때가 이르러니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며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함으로 힘을 잃은 영혼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우쳐 주되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심히 범죄한 영혼이 있다 해도 판단 정죄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해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만일 죄를 깨우쳐 주는 것에만 그친다면 믿음이 여러 영혼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 2.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계 22:12)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힘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누리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좋은 것으로 연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입니다(눅 15:7). 전도의 사명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더욱 귀한 사명도 받을 수 있지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 맡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야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분야에서든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어겠다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서 사모함으로 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명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 먼저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행하는 것이 참이지요.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방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사명에 대한 소망 곧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길을 밝히 제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충성 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 3.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조금도 사랑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은 물론, 죄인들도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처참한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지요.

이처럼 온전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라고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 외칠 때에 어떤 것이라도 두렵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하셨듯이 때가 이르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한 많은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이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돼 그 대열에 앞장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백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화형을 당하고 사자 밭이 되면서도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떤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갔던 많은 전도자가 있었지요. 큰 권능의 역사를 본 것도 아닌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갔던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권능의 역사를 힘껏 외쳐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권능의 날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기 위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영적 장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을 믿지 않으며(요 4:48), 설령 믿는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가 곧 가까이 이르렀고, 백보좌 심판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과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의 권능의 날에 깨어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1.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힘있게 외칠 수 있고 주의 일을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담대함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야 하며 마음에 조금이라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요일 3:21).

그러므로 주의 권능을 선포하고 외칠 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수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가요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1면에 이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시력이 저하돼 안경을 착용했어요. 안경 없이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였고, 눈앞에 있는 글씨도 잘 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 눈이 시원해지더니 안경 없이도 볼 수 있게 됐어요. 함께 온 제니퍼는 위염을 치료받아 행복해합니다.”

- 필리핀 베벌리 아고히도 자매



“클린징 오일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생기더니 심하게 간지러워 얼굴을 계속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심해져 진물이 나고 급기야 얼굴이 붓고 열이 올라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요. 7월 26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뒤 딱지가 앉고 열이 내리고 부기가 빠지기 시작해 8월 4일 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때 간증 후 급속도로 호전돼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 예능위원회 이진 집사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어머니에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어디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던 저는 중학생 때 자살시도까지 했지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첫날 기도받을 때 갑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복받쳐 흐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편안해졌고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 일본 하야시 요코 자매



둘째 날

‘이보다 더 상쾌할 순 없다’ 최상의 날씨로 역사하신 ‘체육대회’



체육대회에서는 1대대팀, 2대대팀, 3대대팀, 국내외 지교회팀이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2대대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대교구의 단합이 돋보였던 응원상은 3대대팀에게 돌아갔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이 화평함 가운데 치러져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됐다.

이날 날씨는 아주 기이했다. 이른 아침부터 먹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햇빛으로 인해 지상의 온도가 높아져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지열을 식힐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날 교육 때 비를 내린 구름들을 이동시키지 않으시고 밤새 하늘에

갈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온통 구름으로 덮여 주셨다. 때를 따라 해가 살짝 나와 조금 덥다 느껴지면 이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반복했다. 최상의 날씨 가운데 행복하게 체육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수많은 잠자리와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협력해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당회장님의 기도로 구름이 해를 가려 주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에스토니아 빅토리아 콜레소바 자매



“체육대회 100미터 달리기 선수 선발전에서 달리던 중 왼쪽 허벅지 뒤쪽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넘어졌는데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할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으며 가슴 쪽에서부터 하체로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날 저는 체육대회 100미터 달리기와 이어달리기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저처럼 근육이 파열된 사람이 100미터 달리를 하려면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놀랍게도 3일 만에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 남자 MVP 수상 박형배 형제



“해외 25개국에서 참석해 평화롭게 체육대회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자와 함께 함으로 기뻐했고, 시원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첫날 은사집회 때 시력이 좋아져 40년간 사용하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 프랑스 자넷 성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8 2014 August  
 08.17~08.23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예언 5
  - 사랑장 19-20
  - 천국 36-40
  - 마음을 다한 찬양
  - 창세기 강해 14-18
  - 진정한 사랑
  - 일곱교회 12-16
  - 우리의 열심은
  - 요한계시록 강해 25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3
  -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0 (이수진 목사)
  - 마음발을 개간하려면 (이미영 목사)
  - 생명수 10-11/ 믿음의 분량 4 (신동초 목사)
  - 영의세계 13-14/ 기도 2 (이희선 목사)
  - MIS강의 15/ 용서 (정구영 목사)
  - 양선 (김수영 목사)

-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3
  - 옛날 옛적에 6
  - 모두 드려요 13
  - 흥겨운 소리 8
  - English 1-2
  - 만민자킴이 6~7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4
  - 찬양 드려요 1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2
  - 향기 18
  - 뷰티풀 라이프 6
  - 플로리스트 8-9

- 해외성회 및 교육**
- 독일 연합대성회 3
  - 회상 13
  - 2013 기관장 교육 7-8
-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셋째 날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콘서트 장을 연상케 한 '캠프파이어'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여름에도 22~23도의 시원한 날씨속에서 행복하게 캠프파이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지난해에 이어 감사 이재록 목사가 회중 찬양을 인도했다.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과 주님, 목자와 하나 된 곱고 아름

답게 변화된 마음의 향, 감사와 사랑의 향을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 천국에서 펼쳐 볼 추억 앨범의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들며 새 예루살렘 소망도 더해졌다.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소리선교단, 천상의무용팀, 파워워십팀 등 예능팀들의 코러스와 할렐루야반주단, 닛시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감동을 더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또한 목자를 사랑하며 하나 된 모습과 정성 대해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바람을 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저는 장시간 서 있으면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 찬양 중에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도 했습니다.”

- 영국 마티아스 카사사 장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감동적이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유함을 느끼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울동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참석하려고 합니다.”

- 스위스 굴바하르 린들러 성도



“캠프파이어는 아주 웅장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름이라면 아주 덥기 마련인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날씨도 선선해서 성도들에게는 평화롭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 드보라 성도



“은혜롭고 멋진 캠프파이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불꽃놀이를 보며 천국 소망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기다림' 찬양을 하시는 당회장님을 보며 마음에 감동이 임했고 저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아주 좋았습니다.”

- 미국 스테파니 존슨 자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퉁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찬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3747-5777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월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남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인골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인골로 46, 평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1)202-8480, 010-7127-2073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635-9103, 010-7103-409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